

'창립 39주년' 한전KPS, 글로벌 기술력으로 지속성장 다짐

해외원자력사업 최대 매출 달성 등 연매출 1조4000억원 성과 원전 수출사업화 성공적 이행... 끊임없이 해외시장 개척 할 것

대한민국 발전소와 송전설비 정비를 책임지고 있는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창립 39주년을 맞았다.

1984년 문을 연 한전KPS는 발전·송전 등 전력 설비 성능과 신뢰도를 높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전KPS는 또 전 세계 각지로 사업영역을 넓혀가면서 연매출 1조4000억원이 넘는 성장사로서 국내 대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전KPS에 따르면 2022년 연결결산 기준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3.5% 성장한 1조4291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3% 늘어난 1306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해외원자력사업 부문에서 사상 최초로 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매출액 1049억원(전년대비 20.1% 상승)을 달성했다.

한전KPS는 UAE 바라카원전 정비 역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매출 및 수주금액이 확대됐고, 현 정부 국정 과제인 '원전 수출산업화'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원자력발전사업 부문에서도 전년대비 19% 상승한 1394억원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한전KPS는 이 같은 성과를 우르과이와 요르단, 마다가스카르, 파키스탄, 사우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세계 각지로 진출하면서 글로벌 최고의 발전설비 기술을 전파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이밖에도 ▲국내 원자력·화력 발전소 정비 당사 귀책 고장정지·공기지원 'ZERO' ▲중대재해 발생 'ZERO' 4년 연속달성 ▲LNG 가스터빈 핵심기술 국산화 ▲동해 산불 및 태풍 힌남노 등 위기상황 신속 대응 ▲수소순소발전 기술개발 실증사업 협력추진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영역 확대 ▲고방사선 구역 작업용 침단로봇 개발 등 첨단·특수 정비 기술 개발 및 적용 ▲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1등급 달성 등 한전KPS는 작년 다방면에서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전KPS는 올해도 지



지난 3일 한전KPS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 39주년 기념식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한전KPS 제공)

속성장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 업무혁신, 소통혁신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과제를 선정해 이행하고 있다.

지난 3일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 39주년 기념식에서는 전직원이 글로벌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성장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기념식에서 김홍연 사장은 특히 성능개선, 품력, 수소발전, 연료전지, 원전체제 등 신성장동력으로 기술력 확보와 해외시장 개척에 끊임없이 도전하고자 말했다.

김 사장은 또 ▲기술개발과 인재육성을 기반으로 에너지 신사업 개척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안전 최우선 경영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환경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사간 신뢰와 화합을 통한

공통발전 노력 등을 당부했다.

김홍연 사장은 "외부 경영환경 악화과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더라도 우리가 기본을 지켜간다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찬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지속성장을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어촌공사, 가뭄 선제적 대응으로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 총력

가뭄 장기화 대비 3단계 대책 수립
저수지 133곳 선정 물 채우기 나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영농기 전과 초기, 중기 등 단계별 용수 대책을 수립,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4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3600여곳의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72.7%로 평년의 4분의 3 수준이다.

문제는 전남과 전북 등 호남지역 저수율로 58.5%에 불과하다.

저수지의 절반 정도를 겨우 넘기 수준으로 당장 5~6월 모내기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뭄이 장기화하면 벼 생육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가뭄에 대비해 영농기 전 등 3단계 용수 확보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말까지는 영농 준비 기간으로, 5~6월은 모내기철, 7~8월까지의 본답 급수 등으로 대응 시기를 나눴다.

물 채우기 등 선제적으로 용수확보가 필요한 저수지 133곳을 선정, 모두 1950만㎡의 물을 채울 계획이다.

나주호, 장성호 등 영산강 수계 4대호에서 물을 공급 받거나 하천을 굴착, 물 모으기 등으로 저수지에 채운 양은 현재 1100만㎡에 달한다.

섬진강 수계는 김제 산평천, 부안 고부천 등 주요 하천의 갑문을 조기에 닫아 물을 관리수위까지 담을 계획이다.

강 하류 지역은 하천으로 흘러나온 퇴수를 대형 양수기로 다시 양수해 사용하는 등 이른바 재활용 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이와 함께 항구적인 가뭄 극복을 위해 신규 농촌 용수개발을 비롯해 수원과 수원을 연결하는 수계 연결 사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규전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 관리이사는 "정부와 지자체, 농업인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가뭄을 극복하는 데 공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K-푸드' 넷플릭스서 보고 온라인에서 산다

aT, 문체부 등 유관기관 협력
'K-브랜드 한류마케팅' 추진



한식이 노출되고 있는 드라마 '슈림'의 한 장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글로벌 OTT 플랫폼에 우리 식물을 노출하고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연계한 온라인 마케팅으로 'K-푸드' 수출 확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aT에 따르면 농식품 등은 전세계가 열광하는 한류 콘텐츠를 K-푸드 홍보에 활용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K-브랜드 한류 마케팅'을 추진 중이다. aT는 최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일타 스캔들'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에 우리 음식을 노출시켜 세계인들에게 K-푸드를 홍보하기도 했다.

또 공사는 한류 콘텐츠로 K-푸드를 접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유통되는 우리 음식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외 유명 직구몰에 '역직구 한국 식품관'을 운영한다.

작년 4분기 중국 '티몰글로벌'과 아세안 '리자다'에 개설한 역직구 한국식품관 3개월 만에 국내 식품기업 114개사 입점, 방문객 21만명, 매출 6억 원 성과를 냈으며, 올해는 일본에도 1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유명 식품기업들이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몰에 자체 브랜드 점포를 개설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도 추진 중이다. aT가 지난해 지원한 75개 식품기업은 바이어 상담액 269만 달러와 매출액 43만 달러를 달성

했다.

aT는 ▲K-브랜드 한류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역직구 한국식품관 사업에 참여할 K-푸드 수출기업을 모집 중이다. 사업 신청과 자세한 안내 사항은 공사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오염 수출식품이사는 "전 세계인이 즐겨 찾는 글로벌 OTT와 이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해 K-푸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해외 소비자들이 미디어에서 접한 K-푸드를 현지 온라인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한전KDN, 전남 문화취약계층 아동에 광주비엔날레 티켓 전달



한전KDN(사장 김장현)은 지난 3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우성)에 전남 문화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광주비엔날레 티켓(6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한전KDN은 제14회를 맞이한 광주비엔날레 티켓을 기부함으로써 광주·전남의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홍의덕 한전KDN 상생협력부 부장은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전시된 작품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생생한 문화체험 기회를 받았으면 한다"며 "한전KDN은 더 많은 우리 이웃, 아동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며 신뢰받는 한전KDN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KDN은 지역 상생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초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1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다고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지평지점 062)381-8212~3	농성지점 062)361-4472~4	동운지점 062)528-2640~2	삼무동지점 062)372-3741~2
쌍촌지점 062)381-6551~2	동림지점 062)513-8521~3	버들지점 062)381-197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전지점 062)371-2772~3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